

###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0>

#### 일하는 모습 보고 깨달은 뉘디따

사ът팅에서 사는 큰 재산가의 아들 뉘디따는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출가한 사미였었다. 출가한지 며칠째 되던 어느날 그는 장로 비구인 사리불을 따라 탁발을 나갔다가 어떤 농부가 자기논에 물을 끌어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뉘디따는 사리불에게 물었다. "대덕님, 물은 누구든지 원하는 곳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물은 사람이 끌어들이는 곳을 따라 흐르게 마련이구나."

뉘디따가 사리불의 대답을 듣고 계속하여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무로 활을 만드는 광경

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수행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오직 수행에 힘쓰자 이를 기록하게 여긴 사리불은 뉘디따에게 점심을 가지고 와서 먹게끔 하였는데, 어느 날 부처님은 이같은 일을 신통으로 아시고 오늘은 뉘디따가 큰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칫 사리불이 뉘디따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수행에 지장을 줄까봐 사리불이 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근하셔서 일부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뉘디따는 드디어 모든 번뇌를 여윈, 그래서 다시는 고통에 속박을 받지 않고 삼계의 윤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



####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 다스린다

의 경지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뉘디따가 수행을 시작한 지 불과 여드레만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관련하여 수도원에 머무는 수행자들에게 계승을 읊으셨습니다. "농부는 물길을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굽은 대를 바르게 펴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어 수레바퀴를 만들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 공부는 자신을 경계하고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늘 대상을 따라 굴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이치는 곳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즐겁고 기쁜 곳을 향합니다. 마음 공부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흐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찰하여 대상에 빠지지 않고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뉘디따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자신의 수행으로 연결시켰듯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을 보게 되었습니다. 활을 만드는 사람이 구부러진 나무를 붙여 가까이 대자 그 나무는 곧게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건다 보니 목수가 톱으로 나무를 잘라 수레바퀴를 비롯한 갖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광경을 보게 된 뉘디따는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물도 농부가 끌어대면 곡식을 자라게 하고 구부러진 나무도 활을 만나면 곧게 펴지며 쓸모 없는 나무도 기 술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인가. 마음이야말로 다스리는대로 되는 것이다."

수도원으로 돌아온 뉘디따는 곧 자기 방을 걸어 잠그고 마음

"원오 스님의 <벽암록> 제창은 스님 자신의 전 인격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이나 문헌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기 위하여 당시의 구어와 속어, 몸짓까지 중형무진하게 사용하여 수행자들을 일깨워주고 있지."

6월 5일 저녁 서울 삼보법회(02-913-2859) 법당에서는 선문제일서(禪門第一書)로 칭송되고 있는 <벽암록> 강의가 열렸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30분 진행되는 이 강의의 첫 번째 시간에 삼보법회 상임법사인 송찬우(54, 동국역경위원장) 중앙승가대 교수는 보조지눌 스님의 <벽암록> 서문의 원문을 한자 한자 새겨며 해설해 나갔다.

스님 7경 등 40여 수강생의 진지한 열기로 시작된 이날 <벽암록> 강의는 국내에서 원전으로 하는 첫 번째 강의라는 점에서 다소 흥분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벽암록>은 워낙 방대한 양인 데다 문사철(文史哲)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선지(禪旨)를 갖춰야만 강의할 수 있는 가장 난해한 선어록으로 정평이 나갔기에, 송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엔 송 교수가 10년 이상 진행할 예정인 <벽암록> 강의는 탄허 스님의 제자로서 16세부터 17년간 선교(禪敎)를 함께 닦은 출가 이력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송 교수를 만나 문자를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도리를 전하고자 하는 까닭을 물었다.

### 국내 첫 벽암록 원전 강의 송찬우 교수

## "조사선 심오함 원전 읽으면 이해 빨라요"

▲강의를 개설한 인연은?  
-그동안 13년간 삼보법회에서 <육조단경> <달마대사 혈맥론> <이입사행론> <전심법요> 등 선어록을 강의해 왔습니다. 삼보법회의 신축을 기념해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벽암록>은 조사선의 깊은 뜻과 문학적 표현이 어울어져 한문 원전으로 읽으면 더욱 심오한 맛을 느낄 수 있죠. 10년이 걸리더라도 <벽암록> 100칙을 끝까지 해설할 계획입니다.

▲문자 해설을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뜻을 전한다는 게 다소 역설적인데요.  
-불립문자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대장경도 해석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불립문자의 진정한 도리는 문자에 있지도 않지만 문자를 떠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경전은 이 불립문자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수한 선어록이 온갖 방대한 지식을 동원해 갖가지 깨달음의 기원을 소개한 것도 문자를 통해 불립문자의 종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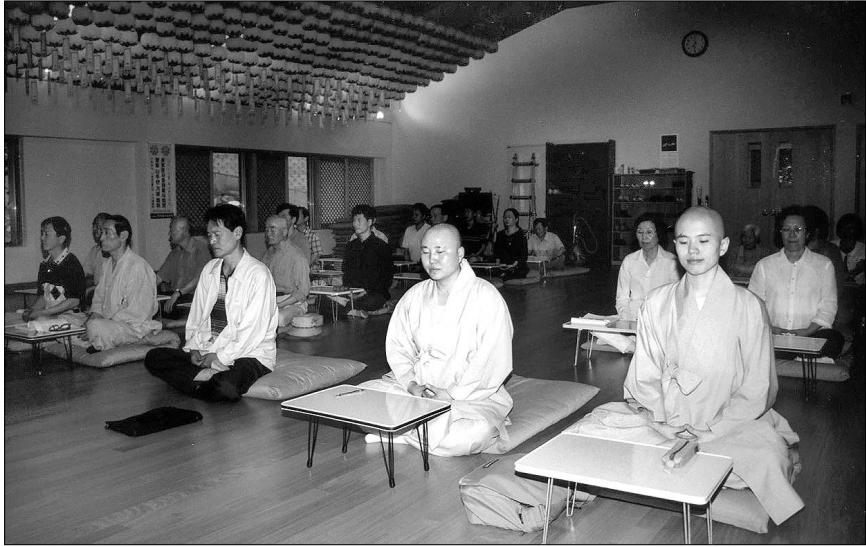
▲<벽암록>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실점이



전제되어야 겠군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삼보법회의 문을 열고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어록도 안 보고 실점만 자기 식대로만 하면 평생 헛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어록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실전에서 자신의 수행 여정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죠. 그래서 저 역시 늘 어록을 읽으면서도 보

▲일부 선원에서 선을 지도하는 분들이 어록에 의지하지 않고 법문하거나 남자를 지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지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의지할 경우 중구난방이 되기 쉽습니다. 지도방식에도 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고칙(古則) 즉, 조사들이 남긴 언행 중에서 귀감이 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안(公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공안은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본래면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안을 직관으로 꿰뚫어 봐야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는 안됩니다. 화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을 자각해야 합니다.



서울 삼보법회의 <벽암록>강의에 앞서 입장 중인 불자들.

#### 불립문자의 참 도리는 문자에 있지도 않고 떠난 적도 없어

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벽암록>에 평창을 단 원오 스님과, 그 책을 불태운 대혜 스님의 견해는 다른가요?  
-원오 스님이 <벽암록>을 설명한 것도 맞고, 제자인 대혜 스님이 이를 불지른 것도 맞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있어야 진속불이(眞俗不二) 됩니다. 원오 스님은 속제(俗諦)의 측면에서 제자를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을 붙였지만, 대혜 스님은 남자들이 언어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은 문자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진제(眞諦)의 측면에서 <벽암록>을 불태운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진속이제를 동시에 드러낸 것입니다.

#### 모든 현상의 상대성 단절되었을때 마음의 이치 드러나

일심(一心)은 시간적인 선후(先後)와 공간적인 피차(彼此)를 떠난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원래 최상승 달마선종에서는 일체가 다 화두입니다. 둘은 왜 단단한가?, 대나무는 왜 사철 푸르나 등 삼라만상이 다 대도의 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모를 때 선지식을 참방해서 말굽(言下)에 단박 깨치는 것입니다. 이때 깨닫지 못하면 공안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공안도 형식화되어 선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화된 공안은 확인을 의식에 가둬서 발전이 없게 합니다. 사고는 물 흐르듯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선종이 극성했던 송나라 때 보다 공안이 거의 없던 당 나라

#### '벽암록'은 어떤 책? 신 임제종 최고 지침서

<벽암록>은 중국 임제종에서 최고의 지침서(指針書)로 꼽혔던 어록으로 우리나라 선가(禪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책. 설두중현 스님이 <경덕전등록>에서 참선에 도움이 되는 공안(公案) 100칙(則)을 뽑아 송(頌)을 달고 여기에 원오극근 스님이 수시(垂示), 단평(短評), 평창(評唱)을 달았던 것이다. 1125년 원오 스님의 제자에 의해서 편집되어 간행되었으나, 그후 제자 대혜종고 스님이 이 책이 책을 형식화하고 훗날만 내는 구두선(口頭禪)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간본(刊本)을 회수하여 불태웠다. 그 뒤 장명원(張明遠)이란 사람에 의하여 중간(重刊)되어 오늘날까지 유통되었다.

때 오히려 도인들이 많이 나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벽암록>이 전하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삼라만상이 내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전합니다. 모든 현상의 상대성이 단절되었을 때 마음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이는 스스로 알고 증명하는 것이며, 마음이 스스로 이치를 아는 친지(親知)입니다. 중생은 비량(比量, 분별)으로 보지만, 부처는 현량(現量, 직접지각)으로 봅니다. 내 마음이 실제로 주체임을 확신해 성품이 스스로 아는 것이니 자각하는 것입니다. 소리 일어나기 이전의 소리를 자득하도록 합니다."

김재경 기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이론 없는 수련은 위험 수련 빠진 이론은 공허  
홈페이지 : www.binmaum.org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움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아강관 스페트형강관 슬라브, 사철,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에 드립니다)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 NOON TIME 송암범음대학 편입생 학인모집요강

중요 무형문화재 50호인 송암스님의 범음의 법맥을 이어서 불교의식을 전수코자 예술의 고장 전주에서는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내용
  - ◆ 초급 : 종성, 도량석, 향수해례, 오분향례, 칠정례, 불공
  - ◆ 중급 : 착복, 천수바라, 막바라, 착어성, 천도제, 대령, 관옥, 시식
  - ◆ 상급 : 영산작법 (상주권공 · 각배 · 영산)
2. 교수진 : 종산 스님 직강
3. 응시자격 : 승려, 교역자, 영산회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
4. 전형방법 : 서류 전형
  - 1)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1매
  - 2)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6월 21일~ 7월 10일
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7.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까지

**송암범음대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85(3층)  
전화 063)643-6619 핸드폰 011-9454-6619  
주치안내 : 남부주자장(남부시장 건너 2시간 무료주차 300m거리)

완산동터미널 인가부속권 관복도형  
본교입학시험장 동문시영사범대학 3층 시내버스승강장

### 그대들이 정경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그 제1계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로 이 오탁악세(五濁惡世)에 ...

"관세음보살"은 정병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법야(般若)·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자랑 편지 / 도서출판 회담 / 신국판 137쪽 / 값 10,000원

● 보급처 : 불교서적 총판 범우당 02)994-4437  
● 문의처 :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겉누비면(역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역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역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매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영양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 P : 011)549-8130